

시론

지자체선거 이후

지방자치선거-이는 지방자치의 개념과 선거의 의미가 합성된 말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화교이며, 지방화시대와 주민행진을 실현시키는 제도요 도구다. 또 선거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민주주의의 축제다. 지방자치선거운동을 응축시켜 말하자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적인 장치 및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네가티브 전략'을 너무 많이 썼다. 정책대결이 아니라 종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과대선전, 전력(前歴) 시비에 너무 많은 정력(?)을 낭비했다.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독립정부 50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서 돌아선 사람들은 이제 각기 다른 길을 가겠지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에게 몇가지 충고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성정치인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정치인적 요소보다 행정가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의 패거리 정치, 밀실정치, 공적인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위,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혁신시키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생활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일선행정이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부, 권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사회이다. 이 경쟁

에서 패배한 사람들, 말하자면 소외계층을 감싸주는 선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이혼,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다양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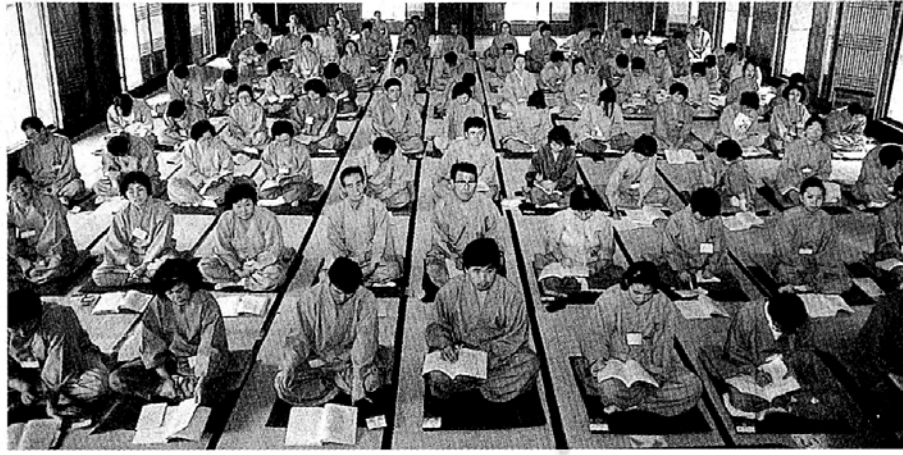
세째는 주민들에게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행정은 주민의 행정참여의 활성화, 경영학적 마인드를 전제로 한 행정, 주민의 생활권의 제공,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구되는 행정,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선거 당선자는 스스로 주민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함께 백만인 걷기 운동처럼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황진수

〈한성대학교수·행정학〉



짧은 기간이지만 일상의 때를 벗고 불교의 참모습을 체득할 수 있는 산사의 여름수련회. 사진은 송광사 수련회 모습.

열린마당

산사수련회

산사 여름수련회가 27일 해인사를 시작으로 8월 13일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서 열린다. 수련회에 참가했던 경험자들은 한결 같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라고 말한다. 산사의 수련회는 새로운 발심(發心)의 장이다. 단기출가를 통해 불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얻기 때문이다. 더욱 효율적인 수련회를 바라는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후관리 관심 보였으면

여름수련회는 긴장(좌선과 108배 등 땀방정진)과 이완(산책과 명상 등)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산문 밖에 다시 나서더라도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하다. 생활선을 체험토록 해 수행주와 어묵동정 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단기출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사보를 보내고 각종 법회에 초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최태영 <인천 민수동·세무공무원>

빠빠한 일정 부담스러워

짧은 일정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보다 단 몇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수련생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또 여법한 산사의 공양예절과 대중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중스님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양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수련회가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황영자 <대구 불로동·주부>

초심자위한 교리강좌 필요

송광사 수련회는 전통적인 수행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수련했던 사람들 중에는 불교교리에 대한 강요가 적었음을 아쉬워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발심한 사람들, 그저 세상 시름버리려고 찾아온 사람들, 타종교인들이었다.

사람 주변 산책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수련회 일정 중 하루를 투자해 송광사 경내·외지까지 구석구석 찾아보고 산사와 대자연과 더불어 사는 수행자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황인술 <남원시 동충동·남원불정지구장>

단체-개인 분리 효율적

가족단위의 수련자들은 가족들만 참가하는 수련회 일정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족단위 참가자나 단체 참가자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묵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이동을 할 때나 세면장 잡자리 등에서 묵언을 깨는 일이 다반사였다.

송희옥 <부산 수정5동·공무원>

수련기간 더 늘렸으면

백양사를 비롯 여러 곳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해인사는 비교적 불교수행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그리 힘들지 않게 불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수련회였던 것 같다. 반면 백양사나 대흥사의 경우는 거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참선의 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빠빠한 일정으로 진행돼 그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에 임할 수 있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몇차례 수련회를 경험하다보니 4박5일이라는 수련회 기간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다. 유경험자를 위해서 수련회 기간을 조금 늘려 일몰적인 수련회 운영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수련회가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은규 <경기도 화성·자영업>

더 많은 사찰서 기회 제공

올해도 대흥사 여름수련회에 참가신청을 했다. 이번 수련회는 예전과 달리 사회가 어렵다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신청할 것으로 본다. 산문을 더 넓혀서 어려운 사회현실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예를 든다면 실직자를 위한 수련회를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또 수련회 이후에도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까운 사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관리가 요망된다.

윤승로 <서울·원효학당 회원>

수련회 참가자에게

"단기출가로 절제 배우고 마음 비움의 대자유 언길"

산문에 들어서면 모든 것을 놓아 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구도자입니다. 수행은 자기의 크나큰 혁명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자부해온 지식, 주의주장, 견해, 우월감, 열등감, 자만심, 타인의 평가, 사회적 지위, 모두를 비워내십시오. 크게 비워내지 않으면 무한의 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도의 길에서는 도덕적 겸손을 넘어서 '나'라고 집착하는 관념에서 비롯된 독선과 이기심, 그리고 편견을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나와 이웃 모두가 자유와 평등의 기쁨을 얻습니다.



법인스님 <대흥사수련회 지도법사>

시간 엄수, 묵언, 소임 충실은 수행정규의 근간입니다. 청정할 규칙은 절제와 자율의 힘을 길러줍니다. 수행규칙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규칙을 지키고 정진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뿌듯한 자기 성취감을 느끼고 청정하고 은밀한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도자는 몸가짐이 단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도 주의와 집중을 주도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세속에서 함부로 익혀온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는 일을 통하여 마음을 자유자재하고도 정밀하게 부리는 참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밥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통하여 절제와 소욕지족을 배우고 이 공양이 내게 오기까지의 공덕에 감사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다시 산문을 나서는데 그는 산문 안의 삶과 산문 밖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늘 문제는 그 대에게 있고, 늘 해답은 또한 그 대에게 있습니다.

여름수련회 일정

Table with columns: 사찰, 차수, 기간, 정원, 대상, 신청기간, 문의. Lists details for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their summer retre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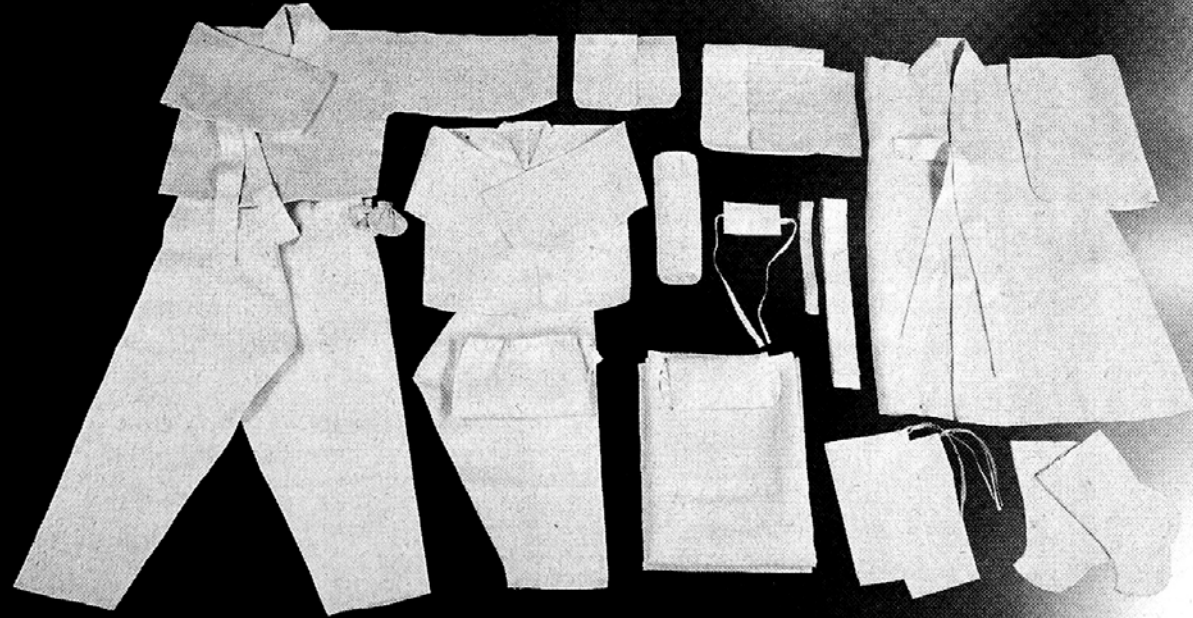
\* 월정사(0374-32-6664), 통선사(0346-555-5974), 은혜사(0563-35-3318) 수련회 일정 미정.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f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지요!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윤달이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f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f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지요.



bf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